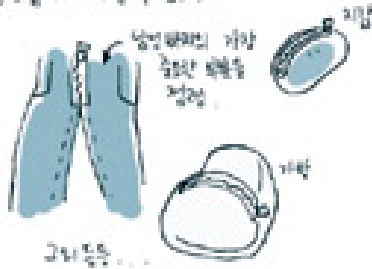


아무도 몰랐던 물레발명이야기

「지퍼」, 1893년 김익재

우리의 생활함에 엄청난 활용도를 보이는 '일명·자판' 즉 '지퍼'는 대단한 활용도가 아닐 수 없다.



마침 이러한 장점을 본채된 수경은 가을에 '지퍼'라는 문구출판이 있었다.



하지만 지퍼를 지퍼라 불러다보니 여간 불참해보이는데 아니었다. 대응해주시리기 위하여는 값싸게 다양한 양플어가 있는데 몇 가지의 알았다.



지퍼는 최근에 '지퍼'에 의해 1893년 사카모 히로유키에 출품되어 주목을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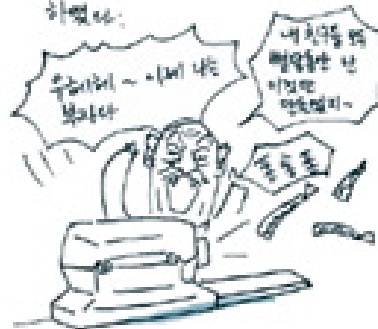


위치는 윤바를 지퍼수에게 달려가 지퍼는 사들였고.

우유리~ 이제 동반 벌어 돌이과



하지만 실상은: 그 유명한 군인정신!! 위치는 1893년이나 영구히 지퍼와동반하는이때를 발명 하였다.



하지만 이게 웬일. 수위의
반응은 영 실정하게 아냐?!



18년간의 노력과 정성이 물거품이
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결국 자신이
발명한 지퍼를 팔기로 했다.



그러던 어느날 브루클린에 사는
어느 양복점 주인이 이 지퍼를 보게
되었다.



양복점 주인은 결국 워커에게
아주 싼 가격으로 지퍼를 사들였고
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
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였다.



그후 1912년 굿리치 회사는 이 지퍼를
점퍼에 붙여 상품화 했는데 이 역시
대 성공이었다. 굿리치 회사는 이름 그대로
좋은 부자회사로 된 것이었다.



오늘날 지퍼의 활용도는 앞서
말한 것만 같아도 이루 말할 수 없이
다양하다. 지퍼야말로
이 시대의 위대한 발명품이 아닐까?

